

# 지역인재 채용 기관별 가산점제 서둘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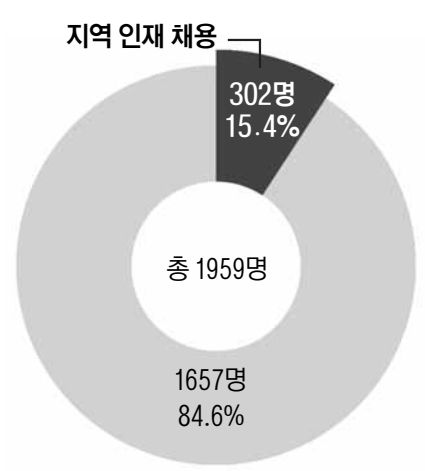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전체의 15.4%에 머물고 있어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채용률 15.4% 머물러  
35% 의무 채용 법제화 이전  
다양한 인센티브 먼저 마련을

나주에 등지를 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15.4%에 머물고 있어 지역 인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들이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제화 이전에 기관별 인센티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공공기관 지역 이주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빛가람동 이주 공공기관은 1959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이중 지역 인재 채용은 302명(15.4%)에 불과했다. 1765명 채용한 지난 2014년 지역인재가 198명(11.2%)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올해 지역 인재의 채용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의 채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취직한 지역 인재는 광주·전남에 주소를 둔 대학 졸업생 기준이기 때문에 출신지 등을 따진다면 순수 광주·전남 인재의 채용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 전체

## ■ 2015년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신규채용



1024명, 지역 302명 ▲한전 KDN 전체 183명, 지역 32명 ▲한전 KPS 전체 360명, 지역 67명 ▲한국전력거래소 전체 16명, 지역 3명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204명, 지역 49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체 24명, 지역 1명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체 46명, 지역 5명 ▲농림수산물기술평가원 전체 9명, 지역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체 36명, 지역 7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체 25명, 지역 1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 5명, 지역 1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체 13명, 지역 3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체 14명, 지역 6명 수준이었다. 문제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낮지만 기관에 따라 인센티브도 다르고, 아예 지

## ■ 기관별 2015년 채용 현황

기관	〈단위:명〉	
	전체	지역인재
한국전력	1024	302
한전 KDN	183	32
한전 KPS	360	6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5	16
한국전력거래소	16	3
한국농어촌공사	204	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1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6	5
농림수산물기술평가원	9	2
한국인터넷진흥원	36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1
한국콘텐츠진흥원	13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4	6

〈자료:국토교통부〉

역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류 전형에서 3% 가점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이며 서류, 면접 전형에서 5점 점수를 더 주는 곳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다.

이 밖에 한전KPS는 2차 전형시 면접에 3% 가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응시원 10명 이상 분야에서 10%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류 전형에서 1% 가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물기술평가원 등은 전혀 지역인재 인센티브가 없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채용 직원 25명 중 64%인 16명이 지역 인재로 채용됐지만 인센티브가 없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24명 중 단 1명만이 지역 인재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46명 중 10.8% 가량인 5명만이 지역 인재였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낮고, 아예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없는 곳도 있다 보니 혁신도시 조성 효과 중 하나인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나주시 등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혁신도시 소재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35%)을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 시장)는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나주시, 김천시, 대구 동구, 전주시, 완주군 등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을 결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콘진, K-콘텐츠 해외 진출 징검다리

### 'KNock 2016' 기업 60여곳·투자자 100명 참가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KNock 2016(이하 KNock)'을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내 빅 킬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투자 유치 및 마케팅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KNock은 'K-콘텐츠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새로운 제안'(Kocca's New Offer for Content of Korea)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에는 한콘진이 발굴하거나 제작 지원한 작품 중에서 엄선된 우수 콘텐츠 기업을 포함 60여개의 국내 콘텐츠기업과 85개의 국내외 투자사 관계자 및 바이어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사전 IR(investor relations·기업설명회) 교육 및 멘토링을 비롯해 피칭을 돕는 콘텐트 피칭 ▲비즈니스 지원 및 비즈니스 상담 ▲한콘진이 제작지원한 우수 콘텐츠 전시 및 디렉토리북을 볼 수 있는 K-콘텐츠 전시 ▲참가자들 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투자조인식도 함께 진행되는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IR 행사에서는 장르, 투자유형, 진출 시장별로 콘텐트 피칭(Pitching)이 진행됐다. 피칭은 프로젝트를 제작사, 투

자사, 바이어 앞에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5일은 게임과 애니메이션·공연 콘텐츠기업 16개사가, 16일에는 방송·애니메이션·공연과 스마트콘텐츠 부문 12개사가 국내 투자사 관계자 및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피칭을 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45개 투자사 관계자 및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다. 한콘진은 이들의 대규모 방문이 K-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시장에는 한콘진이 제작지원한 유망 콘텐츠를 소개하는 디렉토리북이 전시됐다.

한편 올해에는 Knock과 연계해 16~1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ITS GAME 2016'이 동시 개최됐다. 15일에는 두 행사의 네트워킹 리셉션이 통합 진행됐다. 이후에는 해외 퍼블리셔와 투자사 관계자들의 행사장 동시 방문 등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콘진은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및 게임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KNock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우리의 한류 빅 킬러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전파 검사관 청렴 다지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은 지난 14일 1박 2일 동안 무선국검사와 검사관 16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과 청렴 제고를 위한 검사관 워크숍을 열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공>

# 한전, 대학생 서포터즈 24일까지 모집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력서비스의 개선사항을 발굴할 대학생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전력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실행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국내 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24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홈페이지(www.kepco.co.kr/supporters)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50명의 서포터즈는 다음달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활동을 시작한다. 한전은 서포터즈에게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